

# 국산 CTP세터 자부심 확고 원천기술 확보로 국제적 경쟁력 갖춰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PCB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아주하이텍(대표 최현호)은 최근 수년간의 심층적인 분석과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국산 CTP세터인 '프리즘'을 순수한 자체기술로 제작해 인쇄 및 관련업계로부터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주하이텍의 개발에 성공한 서멀 및 UV CTP 시스템은 오랫동안 인쇄관련 분야에 다시 등장한 국산 장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업체들은 과거 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에 접근했으나 조악한 품질수준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고 도태된 바 있는 업체들을 떠올리며 신뢰할 수 있는 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주하이텍은 UV CTP의 국내 총공급원인 대정인터내셔널과 함께 연구, 개발과 생산을 아주하이텍이, 유통과 마케팅을 대정인터내셔널이 책임지는 실질적인 파트너십 경영으로 시장 진입 초기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 94년 설립, 반도체 관련 부문서 원천기술 확보

아주하이텍은 지난 1994년 3월 15일에 설립된 이래, 17년간 반도체 기판 검사장비를 주력해 온 회사로 관련기술에 있어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회로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LCD 드라이버 IC기판인 COF 기판인 COF 회로 필름기판 검사 설비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극미세회로 검사분야에서도 독자적인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으며 PCB, F-PCB 등에도 다양한 광학검사장비를 출시하여 국제시장을 무대로 하는 마케팅을 시작했다.

## 국산 자부심 갖고 내수 시장 이어 세계 진출 꾀해

아주하이텍이 인쇄용 CTP 세터 분야에서 한국 생산업체가 없는 것을 파악하고, 국내 인쇄업계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약 1년에 걸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거쳐 고성능 CTP를 출시하게 된 것은 지난 5월말이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CTP세터 '프리즘'을 개발,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서멀 CTP세터와 UV CTP세터를 각각 별도의 총판 대리점을 통해 시장에 본격적인 공급에 나서고 있는 아주하이텍은 앞으로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CTP 세터의 형식을 반자동설비, 수직공급형 전자동설비, 수평 공급형 전자동 설비로 국가별 선호도와 작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라인업 했다. 레이저 광원은 서멀, UV를 개발한데 이어 내년에는 바이올렛 장비도 출시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 도울 것

아주하이텍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은 2~3가지로 정리된다고 말한다. 국산 장비만큼 외국산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가, 개발 경력이 짧은데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가와 어떤 CTP판재를 사용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주로 듣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주하이텍은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대정인터내셔널과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생산 초기인 만큼 특정한 가격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타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공급하겠다는 점과 제조사이기 때문에 생산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더 낮아진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타사에 비해 우수한 스펙과 솔루션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단순한 가격경쟁 구도를 벗어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편, 고객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판재 부문에 대해 아주하이텍 CTP사업부 강승진 이사는 "CTP판재 사업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고감도 감광액 기술을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품질 및 고품질의 판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화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서멀CTP판을 가까운 시일 내에 OEM형식으로 대량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감광액 연구소를 설립, 석박사급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고감도 서멀 및 UV판 및 무현상CTP판, 바이올렛 포토폴리머판 개발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프리즘은 세계를 주름 잡는 스테디셀러 될 것"

아주하이텍 CTP사업부 백성일 부장

### 아주하이텍의 CTP세터가 지닌 장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50여명의 직원 가운데, 엔지니어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다

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앞선 기술력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하이텍의 서멀CTP는 외장드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정밀 노광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드럼의 장착 및 정밀 노광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밀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CTP세터는 넓은 면적에 정확한 이미지를 노광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정밀한 모션 제어 기술이 앞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주하이텍은 이를 자체기술로 개발,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노광에 관련되어 핵심적인 기술인 초정밀 위치결정 기술 및 레이어 컨트롤을 자체 기술로 개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통 전문사에 비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훨씬 다양한 사양을 제공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레이저 채널도 80채널, 128채널, 192채널 및 256채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라인업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비에 최적화된 상태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고 안정화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대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과거 국산 장비가 시장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하이텍은 뛰어난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 앞선 회사들과의 충분한 차별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품질이 떨어지고 불안정해서 AS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염려는 전

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고객들이 초기에 구매를 하는 만큼 사소한 부분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AS망을 구성하고 고객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 CTP 세터의 가격책정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요.

저희 장비는 현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128채널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192채널의 서멀 및 UV CTP의 개발을 마치고 256채널까지 라인업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형자동차와 소형자동차의 성능을 보지 않고 단순히 가격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CTP 세터의 가격을 무조건 싸게 하지는 않을 것이며 직접 생산업체로서 생산단가 절감을 통해 경쟁사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나름대로 분류하여 전자자동차의 CTP 세터가 통할 지역, 반자동차입이 통할 지역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고사양의 고가모델이 통할 지역과 저가형 모델이 통할 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 분석하여 이에 걸맞은 타입으로 모델을 세분화하여 적극적인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도 일본 법인을 설립하여 본사와 같은 체제로 운영하면서 일본 현지에 알맞은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원천 기술과 뛰어난 품질의 제품라인을 완벽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